

‘아주까리박’ 포함 유기질비료 사용 시, 반려동물 안전에 주의

- 아주까리박 비료 내 독성물질(리신) 관리 기준 강화
- 농촌진흥청, 도시 텃밭·화단 가꾸 때 안전 사용 당부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도시 텃밭이나 화단을 가꾸면서 ‘아주까리(피마자)박’이 포함된 유기질비료를 뿌릴 때 반려동물이 섭취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아주까리박은 아주까리기름을 짜고 남은 유기물로, 식물 성장에 필요한 영양소가 풍부하다. 하지만, 원료인 아주까리 씨앗에는 청산가리보다 수천 배 독성이 강한 ‘리신(Ricin)’이라는 치명적인 독성물질이 들어있다.

리신은 고소한 냄새와 펠릿 형태의 외형 때문에 사료로 착각하고 반려동물이 먹는 사고가 발생한 적이 있어 사용상 주의가 요구된다.

농촌진흥청은 이러한 불안 요소를 없애고 반려동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유럽의 사료 관리 기준을 준용, ‘아주까리(피마자)박’이 포함된 유기질 비료 내 리신 함량을 10mg/kg(ppm) 이하로 설정해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한 바 있다.

또한, 비료 포대 앞면에 ‘반려동물이 먹으면 죽을 수 있다’라는 경고 문구를 눈에 띄는 방식으로 표기하도록 하는 등 표시 기준을 강화해 사용자 경각심을 높였다.

농촌진흥청은 기준치 이하 제품이라도 반려동물이 다량 섭취할 경우,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도시 텃밭 등 실생활 공간에서는 안전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비료를 뿌린 직후에는 흙과 잘 섞거나 흙을 덮어 반려동물이 직접 비료 알갱이를 핥거나 먹지 못하게 한다. 산책로 주변 화단 등에 비료가 살포된 경우, 반려동물이 코를 대고 냄새를 맡거나 이물질을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만약 반려동물의 비료 섭취가 의심된다면, 증상이 없더라도 즉시 가까운 동물병원을 방문해 응급 처치를 받는다.

농촌진흥청 농자재산업과 유오종 과장은 “정부 차원에서 리신 함량 기준을 법적으로 마련해 안전성을 대폭 강화했지만,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반려 가족의 세심한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라며, “지속적인 제도 점검과 홍보를 통해 안전한 농자재 사용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아주까리유박 비료 관련 반려동물 폐사 쟁점 정리

담당 부서	연구정책국 농자재산업과	책임자	과 장	유오종 (063-238-0820)
		담당자	주무관	이승윤 (063-238-0828)
	국립축산과학원 동물복지과	책임자	과 장	성필남 (063-238-7300)
		담당자	연구사	이상엽 (063-238-7322)

농촌진흥청에서 연구·개발한
농업의 모든 것 **농사로**

붙임

아주까리유박 비료 관련 반려동물 폐사 이슈 정리

□ 아주까리유박 비료

- 피마자 열매에서 기름을 짜고 남은 부산물이며, 리신(Ricin) 등의 독성 물질이 함유되어 있음
 - 개, 고양이가 섭취 시 구토, 설사, 조직 출혈, 신부전 및 폐사 유발 가능
 - * 비료 공정규격: 아주까리유박을 원료로 사용한 경우 리신 함량을 10mg/kg이하로 제한

□ 국내 언론보도 사례

시기	매체	핵심 내용	비고
2016-05	연합뉴스	피마자 유박비료에 반려동물 폐사 사례가 잇따른다고 보도, 리신 독성 강조	전국적 이슈화의 출발점
2016-05	SBS	피마자 유박비료가 개·고양이에게 치명적이며, 포대 경고문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보도	실사용 경고 중심
2016-05	데일리벳	피마자 유박비료 섭취 후 동물 연쇄 사망, 수의학적 독성 설명	반려동물·가축 안전 관점
2016-05	전북일보	피마자(아주까리) 유박비료는 반려견과 고양이에게 치명적이라고 보도	지역 언론 사례
2020-07	이데일리	농식품부가 피마자박 비료 안전관리 강화, 리신 점검 확대와 온라인 판매 관리 강화 보도	규제 변화와 연결
2020-07	newsfm / newsam	공원·산책로 살포 금지, 리신 기준 관리, 주의사항 안내 의무화 보도	행정조치 구체화

□ 규제 · 주의문구 변천 * 경고문 중심 → 리신 기준 설정 → 공공장소 살포 금지 → 온라인 유통 관리 강화

시기	변화 내용	근거
2016년 이전	포대 경고문 수준의 안내가 주로 존재, 체계적 관리 미흡 지적	언론보도
2017년	피마자박 비료의 리신 함량 기준 설정	제도적 기준 도입
2019년까지	정부지원 유기질비료 품질검사에서 기준 위반 사례 없음	사후 관리 결과
2020년 6월	공원·산책로 등 동물 출입이 잦은 공공장소 살포 금지	현장 노출 차단
2020년 하반기	정부지원 대상 외 유기질비료까지 리신 점검 확대, 온라인 판매 시 주의사항 안내 의무화 지도	유통 관리 강화